

제주방언의 상태동사의 동작화과정에 대하여

康 貞 姬*

차 례

- I. 서 론
- II. 제주방언의 상태동사의 동작화과정
- III. 결 론

I. 서 론

이 글은 제주방언의 동사 어미활용에서 파악되는 동작상 형태소 중 ‘-암시-/-엄시-’가 상태동사 어간에 결합될 때 일어나는 동작화 현상에서 제주방언 언중들의 인식양상을 살펴 보는 데 그 으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 글의 진행 순서는 I-1에서 ‘-암시-/-엄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살펴보고 II에서는 상태동사 가운데에서 [+가변성]의 자질을 가진 어휘 항목들에 한해서 동작화 현상을 설명한다.

[+가변성]의 어휘 항목에 국한하는 이유는 모든 상태동사에서 [+가변성]이라는 의미특질을 내포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성(timed)과 관계가 있고 다시 이 시간성은 동작의 양상, 즉 동작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작상 형태소 ‘-암시-/-엄시-’와의 결합과정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송전대학교 국문과 전임강사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 흥배(1970)의 형용사의 “동사화”(Verbalized)에서 암시 받은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state] [+changable]의 자질을 가진 동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state]→[-state], 즉 [+action]으로 자질이 바뀌는 현상을 설명하므로 용어를 “동작화”(activization)로 써보았으나, 타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1. ‘-암시-/-엄시-’에 대한 연구

이 형태소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를 살펴 보면 이 승녕(1960)의 “現在行動이 進行되고 있을 때에 限하여 쓰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곧 “*durative*의 意識”(필자가선)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하였으며 현 경효(1974)는 “方言 定動詞의 活用語尾는 動作相을 표시하는 形態로 「未完了相」의 형태/-암-~-엄-/…또 「未完了存續相」의 形態/-암시-~-엄시-/(變異形態/-암ㅅ-~-엄ㅅ-/)이 사용되고 있다”라 하여 완료 존속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줄고(1976)에서는 {-m-}을 기본 형태소로 하는 /-am-~-əm-, -m-/은 미완료상의 변이 형태들로 보았다.

그리고 홍종림(1977)²에서도 필자의 견해와 같은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先語末語尾는 aspects로 파악되는 것으로, 未完了相; 암/엄, 암시/엄시…”를 들고 있으며 미완료상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문법적 형태가 담당하는(필자가선) 時間線上의 動的意味〔動作 또는 狀態의 變化(필자 가선)], 즉 어떤 指向性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이 남덕(1982)에서는 다양한 예문들을 제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語幹 ↓ 사역 ↑ 피동 격	1	2	3	4	5	6	7	8	9	1	2	語尾	
	사	어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역	나	나	시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b.		c.				d.					

b. 時相을 나타내는 2, 3, 4 칸에서 未完了相(가선필자) 現在完了相, 過去完了相”

위의 결론에서 ‘未完了相’이라고 하는 것은 3칸의 ‘ㅁ’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의 연구들이 모두 이 형태소를 문법 범주로 보았다는 공통성과 “미완료상”을 기본개념으로 두고 있는 데 이론이 같다고 할 수 있겠다.

²홍종림氏의 1975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부분수정한 것이라고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으나, 필자는 아직 이 논문을 구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성 낙수(1982)는 이 형태에 해당하는 ‘암’, ‘아’를 통사 범주로 보아서 명사화소, 즉 명사보문자로 보고 이 보문자는 문장을 최상위 명사구에 하위 문장을 내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³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로는 홍(1977)을 제외하고는 문체 대상의 형태소를 대부분이 동작동사에만 적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홍(1977)에서 논의된 상태동사에 결합되는 ‘-암시-/-엄시-(2)’가 동작동사에 결합되는 ‘-암시-/-엄시-(1)’과는 별개의 것인가를 재확인하고자 하며 이론 전개 근거는 위 논문을 기본으로 하여 확대 설명하는 방법을 취한다.

2. 변화·움직임

인간은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하여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것만을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의식, 지각과 현상, 즉 주관세계와 객관세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사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아울러 공간의 바뀔을 뜻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동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기본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다’, ‘오다’라는 명제는 ‘가기 전 상태’와 ‘오기 전의 상태’를 연상케

³이를 통사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보문자로서 가능하지만 표준어나 본도 방언의 명사화 보문자인 ‘口’와 문법 형태소인 ‘口’(암엄, 암시/엄시)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 같다. ‘암시/엄시’의 암/엄을 명사화 보문자로 보게되면 시상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아시/어시’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완료형태소인 ‘∅’도 보문자로 가정해야 하는데, 시상의 문제를 화자의 인식 양상으로 바꾸어 볼 때 ‘口’ 동명사는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여져 완료상으로 인식(김재기, 1980.6) 하는 한편 홍종립(1977: 537) 動名詞形語尾 ‘-(으)口’은 時間線(時間의 幅)만을 나타내고 암시/엄시는 시간선상의 동적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미완료, 즉 지속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암시/엄시의 암, 엄을 명사화 보문자인 ‘-(으)口’라 동일한 통사기능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통사기능으로서 ‘암·아’가 성립한다고 해도 최상위 명사구보다는 동사구에 하위문장을 내포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하는 한편, 그러한 동작이 지향하는 목표시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작은 두 지점 사이에 연속의 과정이 존재하게 되고 이 연속과정 자체는 바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전제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

‘앉다’ ‘서다’ ‘오르다’ ‘내리다’ 등과 같은 움직임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데, 다만 방향에 대한 인식이 전자는 ‘좌우지향성’의 움직임임에 비해서 후자의 경우는 ‘상하지향성’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틀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세계 안에서서는 ‘흐름’ ‘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좌우지향성’으로 인식되는 듯하며 모든 상태의 변화라든가 동작의 시발점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것⁴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살다’ ‘기다리다’ ‘자다’ 등과 같은 상태지속성 동사는 장소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간의 이동만을 전제로 하는 움직임이다. [+상태], [+가변성]과 같은 자질을 가진 형용사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움직임 안에서 선·후의 감각을 인식할 때 우리는 시간이 경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간 안에서 양쪽 끝을 인식하여 이 둘 사이에서 한 쪽 끝과 또 다른 끝을 연결해주는 공간선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다시 돌아가서, 시간의 흐름은 변화없이 존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 또한 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란 상태의 변형과 이동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변형’이라 함은 하나의 실체가 다른 실체로의 몸바꿈, 즉 이전의 상태에서 그 다음의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이동’은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서로 엇물리며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세계의 사물들의 변화는 순간적이라기 보다는 두 경계 사이에서의 연속적인 이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의 상태를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⁴이것은 정서법이든가 지면에 글을 쓸 때 처음 시작을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서 오는 공통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필자 나름대로의 추측이다. 그러나 중국어처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민족들의 선·후의 공간개념은 어떨지에는 의문이 간다.

한편, 우리는 인식이라는 주관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두가지의 변화를 구분한다.

첫째, 무한히 긴 시간에 미세한 정도로 이동을 하는, 외견상으로는 마치 정지되어 있는 듯한 현상과 둘째,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장소의 전환을 가져오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필자는 앞것을 ‘정적인 움직임’ 뒤엎것을 ‘동적인 움직임’으로 부르려고 한다.

따라서 이른바 상태동사—형용사 중에서 [+가변성]을 지닌 것들은 ‘정적인 움직임’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제 이와 같은 ‘정적인 움직임’의 현상들이—언어 표현 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적인 움직임’과 어떻게 동일하게 구현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음에 이들 둘의 범주 안에서의 인식 양상이 어떻게 동일화되는가. 그 과정을 제주방언의 상태동사 중에서 [+가변성]의 특질을 가진 것에 한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Ⅱ. 제주방언의 상태동사의 동작화과정

이 장에서 논의될 본도 방언의 상태동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최현배(1977: 483)의 속결 그림씨(性狀 形容詞) 중에서 빛(色), 별(光), 따뜻하기(溫度), 그리고 상하(上下)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1. 빛깔(色)의 움직임

- ① { 노랑하다
누렁하다
- ② { 빨강하다
벌경하다
- ③ { 까망하다
거멍하다
가망하다
- ④ { 파랑하다
퍼렁하다

- ⑤ {하양하다
허영하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형태 구조를 살펴 보면 상태동사 기본어간 ('노라-' '누리-' '빨가-' '떨거-' 등)에 일차 단계로 '-오-'(-ㅁ-)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하다'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의 근거는 '맑다'에 대응되는 어휘로서 본도 방언의 '만하다'⁵⁾ 등이 중세어적인 요소를 유지하는 데 유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어의 색채에 대한 기본 표현어인 '노랗다' '퍼렇다' 등도 '노라+φ+하다' '퍼러+φ+하다'와 같은 기저형으로 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 이유는,

- ①' {노리릉하다
노리수릉하다
노립조고릉하다
- ②' {누리릉하다
수립수릉하다
- ③' 불구스릉하다
- ④' 거무수릉하다
- ⑤' {푸리릉하다
파리릉하다
푸리수릉하다
- ⑥' 히뚜릉하다

①~⑥에 대한 기본 표현에 관해서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파생 표현들이 표준어의

- ①'' 노르스름하다
②'' 누르스름하다
③'' 붉으스름하다
④'' 검으스름하다

⁵⁾ '多'에 해당하는 또 다른 형태로서 '하다'도 들 수 있다.

⑤'' 푸르스름하다

파르스름하다

⑥'' 하야스름하다

와 같이 ①'~⑥'가 상태동사 파생어간+ㅇ+하다로 ①''~⑥''가 상태동사 파생어간+ㅁ+하다로서 똑같은 패턴다임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본도 방언의 '-ㅇ-(-ㅁ-)'이 명사화 접미사⁶라는 것은 표준어의 '-ㅁ-'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논의틀 다시 언어의식의 측면으로 돌아가서 상태동사의 동작동사화 과정을 위의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색채에 관한 기본표현어를 보던

① 물이 노랑했져

(물이 노랑게 되고 있다)

② 하늘이 퍼렇했수다

(하늘이 퍼렇게 되고 있어요)

③ 양지가 벌겉했심게

(얼굴이 벌겉게 되고 있네)

④ 솔바위 거멍했수다 불 잘 지듭써.

(솔 옆이 거멍게 되고 있습니다, 불을 잘 메십시요)

⑤ 야야, 그만 불르라. 그만 해도 ㅎ했시베게.

(이 아이야 그만 발르라. 그만큼 빨라도 얼굴이 하에 지고 있지 않니.)

와 같이 '-ㅎ다'에 대해서 동사와 동일한 어미활용을 시켜서 동작화 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색상의 상태를 '변화'하는 것을 '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⁶-ㅁ-을 명사형성접미사(-K)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 붉으락 푸르락

는 사실은 ‘-하다’의 어간에 결합된 지속상(durative) 형태소인 ‘-암시-/-엄시-’이다. 이 ‘-암시-/-엄시-’가 앞의 I장에서 살피 본 바와 같이 “-고 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선행동작이 다음 동작으로의 이행과정을 표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어에다가

① 푸르스름하다(푸리릉하다; 방언형)

→*㉠ 하늘이 푸르스름하고 있어요

㉡ 하늘이 푸리릉수다(방언형)

② 붉으스름하다(불그릉하다; 방언형)

→*㉢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있다

㉣ 얼굴이 불그릉쪼(방언형)

등과 같이 ‘-암시-/-엄시-’가 ‘-고 있-’에 대응된다고 해서 방언형과 같은 ㉠의 표현을 ㉡과 같이 표현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본도 방언의 상태동사를 동작화시키는 특수한 언어형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본도 방언의 언중들은 상태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상 형태소인 ‘-암시-/-엄시-’를 결합시키는가?

이것은 색채의 현상도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 색채가 ‘변한다’라는 명제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색채의 기본 표현형식인 ‘노랗다’라는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 단계로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그 까닭은 색채 그 자체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 즉 완료상태 이 완료가 그 색채의 가장 절정기이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을 지향해서—그 방향은 기본 표현형식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상태의 표현 단계 이전에 이미 그 색채의 절정기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움직이는 과정의 단계

⁷미완료상(imperfect)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미완료’라는 용어의 개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의미의 ‘미완료’로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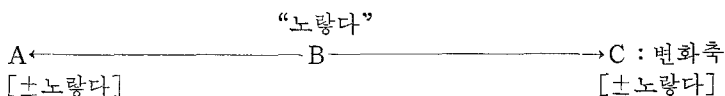
단계에서의 화자의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① 노라스름하다
- ② 누리스름하다
- ③ 누리끼리하다

등과 같이 동일 색상의 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색상의 차이를 느낀다. 이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동일 화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 현상에 대해서 발화했을 때 대상물의 색상이 '변화'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변화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으로서 B를 기본 표현형식인 “노랗다”라고 한다면 위의 ①~③의 표현들은 B를 중심으로 해서 A와 C의 중간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 상태보다 더 노랗게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이건간에 완료를 향하는 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색상에 대한 여러 단계의 표현에는 ‘시간의 흐름’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미미한 움직임에 대한 우리들의 동적감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들보다는 움직임의 속도가 빠른 다른 상태들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2. 온도·밝기·상하·길이의 움직임

이 기동(한글 161 : 46)에서는 ‘형용사’란 상태를 가리키는 낱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태의 변화를 가리킬 수 없다.

그래서

- 45) ? ㄱ 물이 맑고 있다
- 46) ? ㄱ 날씨가 춥고 있다

등과 같이 ‘밟다’ ‘춡다’나 같이 “정지된 상태만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도 방언의 형용사들 중에서는

45) ㄱ→ 물이 밟았져.

46) ㄱ→ 날씨가 춡었져.

와 같이 진행형, 즉 지속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에 예를 들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① 춡다

→ 날 춡을수다

(*날씨가 춡고 있습니다

날씨가 춡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춡어가고 있습니다

② 텡다

→ 방 텡을시메 그만 지드라.

[방이 텡어지고 있으니, 그만(불을) 빼어라]

③ 뗃다(溫)

→ 방 뗃을시메 그만 지드라.

④ 얼다(冷)

→ 날 얼을수다. 옷 얼어입영 나갑써

(날이 얼어지고 있습니다. 옷을 많이 입고 나가십시오)

⑤ 밟다

→ 형광등이난 밟을수다양.

(형광등이니까 참 밟기도 합니다. 예)

⑥ 어둡다

→ 날 어두겡수다. 훈저 어둡겡써.

(날이 어두워 가고 있습니다, 빨리 걸으십시오)

⑦ 야프다

→ 물 싸가난 야팜수께.

(물이 썰물이니까 알아지고 있음지요)

⑧ 질다(長)

→ 해 질일시메 드룻일 더 해지쿠다양.

(날이 길어지니까 들일을 더 할 수 있겠지요)

⑨ 익다

→ 피기 익수다. 훈저 내뽀썩.

(고기 익고 있습니다. 빨리 내놓아 버리십시오)

⑩ 설다

→ 감지 설썩썩, 확 더끄라.

(감자가 설겠다. 빨리 덮어라)

⑪ 마르다(乾)

→ 뱃 조와부단 스담 잘도 물뺏수다.

(벌이 좋으니까, 빨래가 잘 마르고 있습니다)

와 같이 상태동사 어간에 직접 지속상 형태소 ‘-암시-/-엄시-’를 결합 시켜서 ‘진행형’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다만 상태동사에 대해서 ‘진행형’이라는 말이 덜 어울리긴 하지만 동작동사들 가운데에서도 동사 항목의 의미특질에 따라서 ‘진행’과 ‘지속’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거듭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이라고 규정한다면 위의 ‘진행형’도 ‘지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⑪의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을

편의상

A—————→B : 변화측

[-완료]

[+완료]

로 그려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운동’이나 ‘변화’의 방향, ‘좌우지향’으로 인식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왼쪽을 출발, 또는 그 이전의 상태, 오른쪽으로 갈수록 완료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여 화살표를 \longrightarrow 로 표시하였다. 그래서 A에 가까울수록 B의 상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온도, 밝기, 길이, 속성 등이 소극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 \longrightarrow B \longrightarrow C \longrightarrow$

B를 “춥다”에 대한 기준으로 잡는다면 A와 B를 연결하는 그 사이의 상태는 A보다 더 춥거나 B보다는 덜 추운 상태가 공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화의 과정에서 A와 B를 인식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가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인상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남게 되기 때문인데 이는 시간의 연속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을 지각하는 것은 바로 객관세계의 운동을 지각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이며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움직임의 연속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변화를 연상케 하고 변화에 수반되는 듯이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은 변화, 생성하는 객체들 자체가 아니고 우리들이 이러한 객체들의 존재를 인식함과 더불어 의식 가운데에 남아 있는 인상을 기억하는 주관세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객체의 상태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의견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의식할 때, 이들과 시간의 연속은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간주해 버리기가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그 이전의 인상과 현재 목격하는 것의 공존 현상에서, 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인상과 기억, 즉 과거, 미지 상태로의 전환의 교차되는 부분을 ‘현재’라는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고 영역에서 지각되는 대상들은 사실(fact)과 움직임(action or change)의 양면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홍 중립(1977 : 531—35)에 제시된

A형 ; — 듯 을 이 파 ?

B형 ; — 듯 알 수 다 .

(필자가 A.B형으로 설명상 변형시킨 것임)

의 “동명사+이다”의 질문형과(A형) ‘상태동사어간+암시/-엄시-형(B형)’에 대한 설명은 A형은 제시된 예문의 내용에 있어서 ‘듯다’라는 과정이 하나의 사실(실체)로서, 대상화되어 화자의 판단에서 따듯해진 상태가 완결되었다고 확정(십재기;1980:88)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장 구조면에서 볼 때 동명사 ‘듯음’뒤에 연결된 ‘-이우파’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다’의 문장 안에서의 의미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음’과 B형의 ‘-암시-/-엄시-’가 서로 다름을 구분할 수 있다.

‘-이다’는 주로 체언 뒤에서, 이 체언의 내용에 대한 긍정 판단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다’는 원래 ‘此’와 ‘非’의 대립인 ‘是’의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서 논리적 판단에서는 긍정명제와 부정명제를 이루는 계사로서 역할한다. 그러므로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동명사문인

A(37)*무시거 숨안 이추룩 듯음이우파?

(무얼 빼어서 이렇게따뜻하고 있습니까?)

나 숨안 듯음이네

(나무 빼어서 따뜻하고 있지 않니)

이 방 제법 듯음이여

에서 37)의 의문형에서는 상대방이 지각하고 있는 대상, 즉 방안의 온도—“듯음”의 정도—대해서 ‘확인’여부를 문제 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듯듯하다’라는 명제에 대한 상태를 화자가 긍정 판단하여 하나의 완료된 사실로서 인식하여 대답하게 된다.(37),(43).

그러나 B형의 ‘-암수다’는 ‘듯듯하다’라는 상태가 느끼는(지각하는) 현재에 지속 변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움직임과 동일한 차원에서 시간성을 내포하는 언어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A형의 ‘-음이우파’ 또는 ‘-음이여’등과 같은 동명사문의 내용은 시간선상의 구현(홍;534), 즉 완료된 사실로서의 변화과정의 한 단계를 일정 시점에서 정지된 靜의·狀態(홍;534)로서 충분하며 B형의 ‘-암수다/-엄수다’는 시간선상에서 연속해서 변화하는 움직임, 즉

*홍종립(1977)에서 뽑은 것임

動的인 의미(홍; 534)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암시/-엄시-’가 원래는 동작동사에만 결합시켰던 것이 아니라 [+상태], [+가변성]의 상태동사들에 대해서도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한에서는 목적시점을 향하는, 지향성이 결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상 형태소인 ‘-암시/-엄시-’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태동사에 결합되는 ‘-암시/-엄시-’를 동작동사에 결합되는 ‘-암시/-엄시(I)(홍; 537)’와 구분해서 靜相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어의식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도 충분하며, 문법의 범주에서도 동일 형태소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접되는 동사류의 의미특질의 차이에 따라서 동작상을 완료, 지속상과 靜相으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 구조의 간결성을 추구하는 언중들의 의식세계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태들의 움직임을 보다 명확하게 동작동사들과 동일화시키는 과정을 만들게 된 것이 상태동사 어간에 지속상 형태소를 결합하는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게 되어

40) 방이 [·]닷[·]아[·]감[·]시[·]나, 보라.

예 [·]닷[·]아[·]감[·]수[·]다

41) 혼적 [·]하[·]라 어[·]둑[·]어[·]감[·]시[·]네

(홍; 1977. 535)

와 같이 상태동사어간에 동작동사 ‘가다’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면 충분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정적인 움직임+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구조로서 상태의 변화를 보다 명확한 움직임으로 구체화시키는 언어책략이 나오게 된 것이다.

⁹본도 방언도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조동사 ‘-(아/어)지다’를 상태동사에 연결시킨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로 한다. 그 이유는 상태동사뿐만 아니라 동작동사에 연결되어서 [+피동], [+가능성],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것은 후고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본도 방언의 상태동사를 동작화시키는 언어 표현에서 그 배면에 깔려 있는 언중들의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양상, 즉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그 결과

1. 색깔의 현상에 대해서는 첫 단계로 명사화시켜서 객관적인 사실화시킨다. 상태동사어간+ㅇ(-ㅁ-) ; 명사화접미사 그 후에 동작동사인 '하다'를 연결시키고 이 동사에 한해서 어미활용을 하여 지속성을 표현한다.
2. '하다'에 결합되는 상태 지속을 표현하는 요소는 동작상의 지속상인 '-암시-/-엄시-'이다.
3. 변화과정이 색상보다 빠르다고 인식되는 온도, 기후, 上下, 밝기 등의 상태동사에 대해서는 이들 동사의 어간에 곧바로 지속상 형태소인 '-암시-/-엄시-'를 결합시켜 동작화시킨다. 이 분야야말로 표준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언어사실이라 할 수 있다.
4. 마지막 단계로서 상태동사에 동작동사 '-가다' '-지다'를 연결시켜서 동작화시킨다.

參 考 文 獻

- 강정희(1976), "제주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 이대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성낙수(1982), "제주도 방언의 접속사 연구-[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류 중심으로," 「한글」, 176 호.
- 심재기(1980), "동명사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언어」, 5권 1호, 한국언어학회.
- 이기동(1974), "조동사 지다의 의미연구," 「한글」, 161 호.
- 이남덕(1982), "濟州方言의 動詞終結語尾변화에 나타난 時相體系에 관하여," 「論叢」第40輯, 梨花女大, 韓國文化研究院.
- 이승녕(1960), "濟州道方言의 形態論的研究,"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 현평효(1974), "濟州方言의 定動詞 語尾 研究," 동국대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홍종립(1977), "濟州方言의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 안/연, 아시/어시'에 대하여," 「金亨奎 教授 停年退任紀念 論文集」, 서울대 출판부.